

크스님 수행한담

“사람다운 사람 되려면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35) (佛言)如人鍛鐵 去淨成器 器即精好 (불언)여인단철 거제성기 기즉정호 學道之人 去心垢染 行即清淨矣 학도자인 거심구염 행즉정청의

억념오게 필독도과 在吾左右 雖常見吾 재오좌우 수상견오 不順吾戒 終不得道 불순오계 종부득도

‘사람이 쇠를 버릴 때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그 물건이 깔끔하게 되듯이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이 때로 불된 것을 버려야 수행이 곧 청정해진다.’

‘불자여, 나에게서 수천리 떨어졌어도 내가 설한 계율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도의 열매 얻으리라. 그러나 내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볼 수 있을 지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하리라.’

(36) (佛言)人難惡道 得為人難 (불언)인리악도 득위인난 既得為人 去女即男難 기득위인 거여즉남난 기득위남 육근완구난 육근기구 생중국난 既生中國 值佛世難 기생중국 치불세난 既值佛世 遇道者難 기치불세 우도자난 既得遇道 興信心難

(38) 佛問沙門 人命在幾間 對曰 數日間 佛言 子未知道 佛問 沙門 人命在幾間 對曰 飯食間 佛言 子未知道 佛問 沙門 人命在幾間 對曰 呼吸間 佛言 善哉 子知道矣 佛問 善哉 子知道矣 佛問 善哉 子知道矣

“쇠를 버릴때 찌꺼기 제거하듯 마음의 때 버려야 수행이 청정”

기득우도 흥신심난 既興信心 發菩提心難 기흥신심 발보리심난 既發菩提心 無修無證難 기발보리심 무수무증난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으셨다. ‘사람 목숨은 얼마간에 달렸느냐?’ 한 사문이 ‘머칠간’이라 답했다. 부처님께서서는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 하시고 다른 사문에게 똑같이 물으셨다.

‘사람이 악도를 벗어나 이 몸 받기가 어렵다.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남자가 되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육근을 온전히 갖추기가 어렵다. 육근을 갖춰 냈더라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도를 만나기 어렵고 이미 도를 만났나 해도 신심을 내기 어렵다. 신심을 냈더라도 보리심 일으키기 어렵다. 보리심을 일으켰더라도 무심도 이루기가 어렵다.’

한 사문이 ‘밥 먹는 사이’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 ‘너도 아직 도를 모른다’ 하시고 다른 사문께 다시 물으셨다. 한 사문이 ‘호흡 지간에 있습니다’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너는 도를 알았구나’ 하셨다.

(37) (佛言)佛子難吾數千里 (불언)불자리우수천리 憶念吾戒 必得道果 龍眼

(39) (佛言)學佛道者 佛所宣說 皆應信順 (불언)학불도자 불소언설 개응신순 譬如食蜜 中邊皆甜 吾經亦然 비유식밀 중변개침 오경역이

‘불도를 배우는 이는 내가 말한 법을 모두 잘 믿고 따라야 한다. 비유하자면 꿀을 먹는 것과 같아서 중간에도 끝에도 다 맛이 달듯이 내가 설한 법도 또한 그러하다.’

백운스님 (미륵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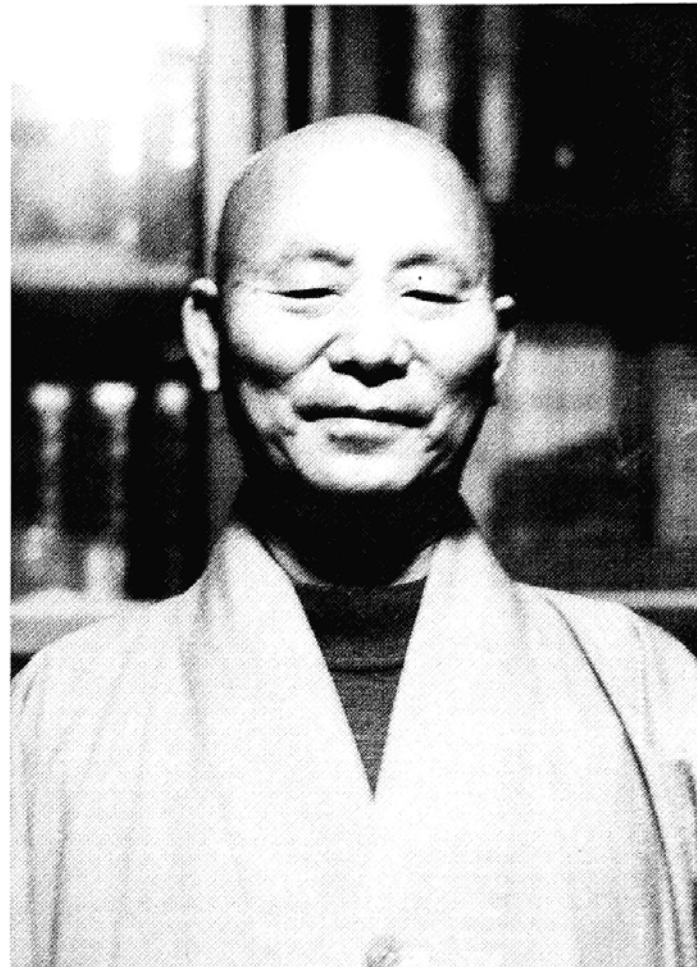
시대가 어지럽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니 임제선사의 진인(眞人)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나는 임제선사의 ‘참사람-眞人’ 사상을 가장 높이 우러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참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일컬어 불(佛)이라고도 하고 크게 깨달았다고 해서 ‘대각(大覺)’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일체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심(心)’을 강조하고 또 본성을 찾아라 해서 ‘성(性)’이라고 하는 등 불, 심, 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제스님에 와서 참사람, 진인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부처란 무엇이나 하면 바로 참사람이다 이말입니다. 진실로 사람다운 것이 부처입니다. 사람다운 것을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불본주의, 심본주의, 각본주의를 뛰어넘어 인본주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임제스님의 진인사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불교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그속에는 이미 행복이 들어 있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길을 배우나가는 출가의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주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출가는 단순히 세속에서 절집으로 들어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품을 깨달아 참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나는 다섯 살 때 절에 들어와서 아홉 살까지 살다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시 속가로 갔지요. 그때의 출가는 수행 정진을 위한 출가라기 보다는 단지 짧은 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출가였던 셈이지요. 그러나 그 인연이 이어진 것은 6·25 동란때입니다. 6·25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친은 빨갱이들에게 학살당했고 나도 세 번이나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금지했는데 그런 사상에 동의할 수가 없었지요. 나는 도망을 쳐서 산속 절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출가해서 다시는 세속에 나가지 않겠습니다’고. 그 기도의 원력인지 나는 세 번이나 잡혔지만 그때마다 초등학교 동창이 살려준다거나 후배가 살려준다거나 해서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관음보살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6·25전 동란 끝나고 바로 출가했습니다.

처음에 백운사를 찾았을때. 당시 조계종 종정이시던 만암 노스님이 계셨는데 어려서는 내가 백부라고 부르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암스님께서 당시엔 연세가 많고 해서 석산스님을 은사로 모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내가 범어사 선방으로 공부할 하러 가게 되는 통에 석산스님을 모시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화엄사, 송광사, 범어사의 강사를 할수 있게 된 것은 석산스님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가 여쭙고 그랬었으니까요. 나는 주로 만암노스님께 경전과 조사어록을 배웠는데 조사어록을 배우다 보니 선방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났습니다. 어려서는 팔만대장경만 다 알면 도인이

- 1934년 전남 생
- 53년 통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60~82년 영동 중화사, 포항 오어사, 경기 영월암, 길해 장유암 주지 역임
- 범어사 지리산 토굴 등지에서 정진
- 71~87년 화엄사, 범어사, 송광사 강사
- 현재 부산 미륵사에 주석
- (양치는 성자) <진묵대사> <부설거사> 등 소설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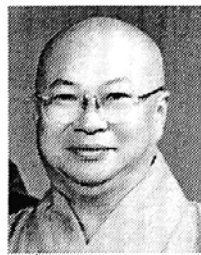
“부처란 바로 참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면 그속에 이미 행복이 들어있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조사어록을 보니 견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동안거를 범어사에서 났습니다. 그때 범어사 조실스님이 통산스님이셨는데 처음 보였을 때 내가 마음으로 늘 그려왔던 크스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시봉을 한 삼년 했습니다. 통산스님은 네 상좌다, 내 상좌다 하는 권속 같림이 전혀 없는 분이고 큰방에서 아단치 시더라도 당신 방에 가시면 전혀 탄애기를 하실 정도로 워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6·25때 그렇게 절살림이 어려워도 아무 차별 없이 오는

대로 스님들을 다 받았어요. 원주스님이 사람 많이 받았다고 투덜거리면 “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땅은 이름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늘상 하시곤 했어요. 즉 모든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다 짊어지고 다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오는데도 다 받아들이다 보니 항상 쌀이 부족했어요. 국수나 수수, 강냉이 등을 배급받아 먹었는데 어떤 때는 국수를 사 흥동안 먹고서 모두들 설사가 나서 고생하기도 했지요. 그래도 스님은 눈 한 번 찌푸린적 없고 찬이 없어도 불평 한번

하시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겸소하고 소탈하신 분이였지요.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한 가르침으로 방향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지혜를 갖추신 분이였습니다. 내가 참선을 하다가 공에 빠졌거든요. 아주 고요하고 고요할 뿐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한 겁니다. 그래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그러면 안된다. 그럴 때일수록 화두를 잡아라”하시더군요. 그러나 공에 빠지면 너무 편안하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에 화두가 잡혀지지 않아요. 스님은 나를 볼 때 마다 화두 잡았는지를 확인하지만 나는 계속 화두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달 며칠을 반복해서 나의 화두를 챙겨주시면서도 화도 안 내시고 자상하게 일러주시더군요. 그렇게 20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 스님 시봉 마치고 들어와 잠깐 누웠는데 목침에서 떨어지면서 잠이 깨어 화두를 들었는데 화두가 들어지는 겁니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형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민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술효소정액(松醇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제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동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 효과가 입증된 「세사이존」 성분을 대량 다 세사이존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극하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